

새 책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어린이 (엄희경 엮고 씀, 이상권 그림)=소파 방정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잡지 '어린이'와 여러 지면에 발표된 글 가운데 사계절의 느낌이 담긴 수필 16편과 동시를 엮은 모음집이다. 어린이를 아끼고 격려하는 방정환의 마음과 당시 어린이들의 삶과 모습, 놀이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산하. 1만3000원.



▶미래가 온다 나노봇 (김성화·권수진 글, 김영수 그림)= '미래가 온다' 시리즈 두번째 권으로 어려운 나노 테크놀로지의 기초를 초등학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초등용 해설서다. 92가지 원자이야기로 시작해 분자의 세계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주사 터널 현미경의 발견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와이즈만북스. 1만3000원.



▶싸가지 생존기 (손현주 지음)=한 가족의 생존을 향한 치열한 분투기를 그려내는 동시에 두 소녀의 결핍을 '우정'이라는 연결고리로 풀어낸 성장소설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성장통을 겪으며 전학생의 고초, 삶과 죽음, 가족 간의 사랑, 꿈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우리 청소년들이 극한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작가의 소망이 담겨있다. 특별한서재. 1만2000원.



▶맨발의 소녀 (김벌리 브루베이커 브래들리 지음, 이계순 옮김)=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배경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줄곧 미움을 받아 온 소녀 에이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세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도 만날 수 있다. 라임. 1만1000원.



▶말에게 보내는 노래 (유희열 글, 천유주 그림)=뮤지션 유희열의 곡 '말에게 보내는 노래'가 발표된지 12년 만에 그림책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띄우는 축사이자 부모님께 뒤늦은 사랑을 전하는 감사의 인사이며, 누군가의 말로서 받은 따뜻한 애정의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여성 자신을 위한 노래기도 하다. 아기와 함께 맞는 '첫' 순간들을 포착한 그림도 눈길을 끈다. 창비. 1만5000원.



▶내 어깨 위의 새 (시빌 들라크루아 지음, 이상희 옮김)=친구 사귀는 일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림책이다.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은 새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 두려움, 열등감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존재다. 책은 이 두려움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생기를 찾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다. 소원나무. 1만3000원.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새콤함 끝 단맛처럼 고통 뒤편에 희망

권여선의 신작 장편소설 '레몬'

언니 죽인 범인 찾는 동생 낙원·복수의 혼재 '노란빛'

"내 삶에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거라고. 무턱대고 시작되었다 무턱대고 끝나는 게 삶이라고."

레몬, 레몬, 레몬, 복수의 주문이 시작되었다.

'누군가 봄을 잃은 줄 모르고 있었듯이 나는 내 삶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2016년 소설집 '안녕 정정뱅이'로 동인문학상을 받은 권여선이 삶의 이해할 수 없음을 서늘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그려낸 신작 '레몬'을 냈다. 같은 해 계간 '창작과 비평'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했던 소설 '당신이 알지 못하니까'를 수정·보완해 새롭게 선보인 작품이다. 위의 글들은 책의 내용과 표지 글의 일부로 무겁고 섬뜩하다.

작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여름, '미모의 여고생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삶의 방향을 깊이 있는 문장으로 풀어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레몬으로 대표되는 '노란빛'이 지배적이다. 레몬은 화학 다인이 숨진 친인니 보 다 평소 따랐던 여고시절 문예반 선배 상화가 했던 시에 등장하는 단어다. 또 다인이 한민우의 집에서 함께 먹었던 따뜻한 계란프라이의 애뜻한 노란빛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그리고 그 노란빛은 언니 해 연이 죽기 직전 입고 있었던 원피스의 색깔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시 오지 않을 좋았던 시절을 상징하는 레몬의 노란빛은 다인으로 하여금 비틀린 자력 구제로서의 복수를 결심하게 만드는 데 여기에 이 소설의 반전이 숨어 있다. 마치 눈이 감길만큼 새콤한 표지 글의 일부로 무겁고 섬뜩하다.



맛처럼 우리네 삶 또한 고통의 뒤편에 노란빛의 희망을 품게 된다는 메시지다. 그리고 글을 읽다보면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과 오버랩 되는 경우가 많다.

소설 '레몬'을 통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작가의 말이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 하나가 그제 날파리 한마리라 하더라도,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 평온하게 죽은 적이 있기를, 단 한번이라도 한번만은 그 불가능한 삶이 존재했기를 기도하게 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생각합니다." 창비. 1만3000원.

백급타기자 haru@ihalla.com

공공재는 상품인가?... 민영화의 민낯

이광호의 '착한 민영화는 없다'

2008년에도 촛불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만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였다. 이 일로 의료 민영화는 수면 아래 가라앉은 듯 했지만 최근 제주사회에서 녹지국 제병원 이슈가 터졌다. 얼마 전 녹지 측이 병원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이 언제 또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 의료를 산업 논리로 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광호의 '착한 민영화는 없다'는 국내외 민영화 현황과 그를 둘러싼 논쟁을 펼쳐놓고 있다. 미국의 의료제도와 영국 철도에서 KT 민영화까지 다다르며 '누가 독이든 사과를 권하는가'를 묻는다.

저자는 산소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듯 현대사회를 지탱

하고 운영하려면 필수적인 기본 재화가 있다고 말한다. 물, 의료, 교육, 전기, 땅과 주택, 전기, 통신 등이 그렇다. 민영화 논쟁은 그같은 공공재를 누가 공급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힌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민영화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여기에 의문을 품는다. 앞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한 외국 사례를 보면 물, 전기 등 인간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주무르는 기업들에게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탓이다.

이 책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진 않는다. 민간 사기업은 활발하고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소비자에게 값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 그와 달리 물, 전기, 에너지 같은 공공재와 국방, 치안, 의료 등은 공공성 강화가 요구된다. 이 부분까지 민간 사기업이 진입해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요지다.

책은 10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쓰여졌다. 민영화에 계속 추진될 경우 바로 그 세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 있어서다. 내일을여는 책.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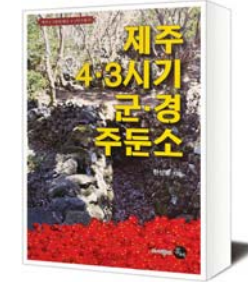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저자와 함께 4·3군경주둔소 조사 한상봉씨



한상봉씨는 지역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4·3군경주둔소의 위치를 들고 직접 현장 답사를 벌여 43곳을 찾아냈다.

"4·3주둔소 설치에 제주도민 고통"



시작은 잣담이었다. 그는 잣담을 연구하기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들렀다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 잣담 몽땅 4·3 때 경찰 주둔소 쌓으멍 가져가버시네." 수백 미터의 잣담이 4·3 당시 주둔소 때문에 사라진 거였다.

그 길로 4·3주둔소에 대한 기록을 뒤져봤는데 알려진 곳은 4~5군데에 불과했다. 이미 1곳은 사라지고 없었다. 더 늦기 전에 조사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마을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하며 동네 주민들에게 위치를 듣고 중산간 목장과 한라산을 누볐다.

제주국제대 도서관 사서인 한상봉씨의 '제주 4·3시기 군·경 주둔소'가 묶인 배경이다. 저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가량 집중적으로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확인한 기록이 담긴 책

으로 제주4·3평화재단 4·3연구총서로 나왔다. 이 책에는 1948~1949년

군·경 주둔소, 1950~1952년 3월 중산간 마을·목장지 경찰 주둔소, 1952년 4월 이후 경찰주둔소 등 43곳이 사진 자료 등을 더해 소개됐다. 시대별 주둔소의 위치를 통해 토벌 작전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주둔소 대부분은 목장 지대에 있었는데 이는 무장대와 민간인 출입의 상·하한선이 되었다.

일일이 주둔소를 찾아 다니는 동안 저자는 지역 주민들의 줄여 상황, 주둔소의 형태와 규모, 식수원 등에 얽힌 증언을 확보해 문답 형식으로 그 내용을 실었다. 증언자들은 주둔소를 설치하면서 지역민의 고통이 컸다고 털어냈다. 경찰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담당 마을별로 이제 막 열살이 넘는 어린 아이에서 육십 노인들까지 동원했다. 마을이 재건된 해안마을이나 피해가 덜한 지역 등 예외가 없었다.

이처럼 힘겹게 쌓아올린 주둔소는 목장 돌담 등으로 이용되며 훼손,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밭담, 산담, 방풍용 돌담으로 쓰이며 헐리거나 도로 개설로 사라진 경우도 있다.

저자는 "주둔소 축성 날짜, 동원 지시 체계 등과 관련해 추후 관련 자료가 발굴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흥재. 2만5000원. 진선희기자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HAPPY 아이사랑 대축제" 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제주시 애향운동장

놀이 마당 해병군악대 축하공연, 미술공연, 전차바이올린 공연, 어린이날 축하박티트리, 신나는 어울림 놀이, 즉석 장기자랑	만들기 활동 왕관 꾸미기, 바람개비 만들기, 타투, 풍선을 타고, 나무 목걸이 만들기, 국화땀이·관땀이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투호던지기, 팽이치기, 대형제기치기, 딱지치기
체험 활동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먹거리 코너 팥죽, 떡꼬치, 솜사탕, 여러 가지 음료	기타 활동 페이스 페인팅, 포토타임, 미아팔찌, 화분재공

행사당일 09:30분까지 기념식장 관객석에 착석한 어린이에게 기념품 및 경품권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관: 제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 정 연